

평 화 선 언

지금으로부터 80 년 전,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시신으로 넘쳐났던 이 히로시마 거리에서 온몸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도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화장한 피폭자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라고 간신히 목소리를 내던 소녀에게 물을 주지 않았던 일을 후회하며 핵무기 근절을 외치는 것이 원폭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피폭자. 원폭을 겪었다는 이유로 상대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 독신으로 생을 마감한 피폭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록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이가 있더라도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네버 기브 업’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온 피폭자. 이러한 피폭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평화에 대한 생각을 전해가는 일은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핵탄두의 약 90%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혼란이 극에 달한 중동 정세를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가 중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국제사회가 과거의 비참한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외면하는 동시에 그동안 쌓아 온 평화 구축의 틀을 크게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 시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 근절에 대한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를 책임질 젊은 세대에게 군사비와 안전 보장, 나아가 핵무기의 존재가 자신들의 미래에 비인도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 뜻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선도하고 시민 차원의 활동 고리를 넓혀주었으면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보다 타인의 입장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우선시하면서 인류는 많은 혼란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현재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 차원의 활동 고리를 넓혀 나갈 때에는 연대가 필수적인 점에서 ‘평화 문화’ 진흥과도 연결되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를 통한 교류 등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선도하는 ‘평화 문화’ 진흥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 제작이나 음악 활동에 참여, 또는 피폭 수목의 씨앗이나 2 세 묘목을 키우는 등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시는 여러분이 ‘평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폭자를 비롯한 선조들의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평화 문화’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 필시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정치가들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정치가 여러분, 자국의 일에만 몰두하는 안전 보장 정책 그 자체가 국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요?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국가일수록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 정치가 여러분,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피폭의 실상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평화를 염원하는 ‘히로시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한 신뢰 관계에 기반한 안전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이자 또 영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제사회의 분단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히로시마시는 세계 최대 평화도시 네트워크로 발전하였으며, 더욱 확대를 목표로 하는 평화수장회의의 회장 도시로서, 전 세계 8,500 개가 넘는 가맹 도시들과 연대하여 무력과 정반대에 있는 ‘평화 문화’를 전 세계에 뿌리내림으로써 정치가들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의 체결국이 되는 것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피폭자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히로시마의 마음’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핵무기금지조약은 기능 부전에 빠질 수 있는 NPT(핵확산금지조약)가 국제적인 핵 군축 및 확산 금지 체제의 초석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부디 내년에 개최되는 핵무기금지조약 제 1 회 재검토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선 피해에 대해 전 세계적인 대응이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 연령이 86 세를 넘어 심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선 피해로 여러 고통을 받고 계신 수많은 피폭자들의 고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재외 피폭자를 포함한 피폭자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피폭 80 주년 평화기념식전에서 원폭 희생자들의 넋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결의를 새롭게 하여 인류가 바라지 않는 핵무기의 근절과 그 이후 다가올 영구적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피폭지 나가사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힘을 모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2025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시장

마쓰이 가즈미

번역: Ability InterBusiness Solutions, Inc.